

새로운 회기 꿈과 비전으로 사명 감당

목대원 계절학기, 청소년 힐링캠프 등 점검

제66차 총회 1회 임원회

교단 제66차 총회 1회 임원회가 지난 5월 25일(월) 오전 11시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가동 목양침례교회(담임 김양인 목사) 회의실에서 열려 위기와 혼란의 정국을 하나님의 은총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새로운 한 회기를 봉사와 헌신의 자세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교단 총무 엄기설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부총회장 임용제 목사의 기도, 총회장 김양인 목사의 설교와 축도 순으로 이어졌다.

김 목사는 고전 15:58 말씀을 본문으로 한 설교를 통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바라보고 꿈과 비전 열정을 갖고 성취한 것처럼 하나님 약속에 근거한 위대한 꿈을 이루어 가는 사역자들이 다 될 것"을 당부하고 임원들을 축복했다.

총회장 김양인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친 후 곧바로 총회장 김양인 목사 주재로 회의에 들어가 서기 차흥식 목사의 회원점명, 총회장 김양인 목사의 개회 선언에 이어 총무보고에서 66차 정기총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고 된 내용과 해외선교사 목사인수, 제회 전국사모연합회 정기총회 등 각종 업무사항을 보고하고 재무 탁정신 목사의 수입보고, 교단발전기금 납입 현황, 회계 윤병하 목사의 지출보고 순으로 이어졌다.

토의 및 안건 결의사항으로 교회가입 청원, 교역자가입 청원, 교회전출입 청원, 교회주소변경, 교회명



징변경보고, 교역자 휴직 청원 등의 내용이 처리되었으며 기타사항으로 제66차 총회장 김양인 목사 취임 감사예배, 제5회 청소년 힐링캠프 개최, 총회 목대원

2017년도 상반기 계절학기 개설, 각 지방회별 교단발전기금 납입 등의 각종 행사가 차질없이 진행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외국인선교회, 외국인 성도와 무의탁 노인 위한 의료봉사



아주대병원 의료진과 협력,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헌신

은혜와진리교회 수월성전 외국인선교회는 지난 5월 21일 세계선교센터 진료실에서 외국인 성도를 비롯한 외국인 근로자와 무의탁 노인 등을 대상으로 5월 의료선교 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과 홀로 외로게 생활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주일예배를 드린 후 진료실을 찾아 아주대학교 병원의 의료진들로부터 정성 어린

검진과 치료를 받았다.

큰 일교차의 영향으로 감기질환을 앓는 환자들이 내과와 이비인후과를 많이 찾았고 육체노동을 하는 다수의 외국인 근로자들도 재활의학과에서 진료와 물리치료를 받았다.

외국인선교회는 다음 의료선교 봉사활동을 오는 7월 16일에 실시할 예정이다.



'신령한 사람, 신령한 생활'



조용목 목사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고전 3:1~3)

사람은 연령, 성별, 성격, 학력, 직업, 출신, 외모, 건강 상태, 인종, 시대, 지역, 국적 그 외에도 여러 형태의 조직이나 모임의 소속에 의해서 분류되어 집니다. 그런데 매우 중요한 것은 성경적인 분류입니다. 가장 단순한 구분은 그리스도인과 비 그리스도인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구원 얻은 자와 구원 얻지 못한 자, 의인과 죄인,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식, 천국 시민과 지옥 자식, 영생 얻은 자와 멸망의 자식으로 나누어 집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2장과 3장에서는 모든 사람을 육에 속한 사람과 육신에 속한 사람 그리고 신령한 사람 이 세 종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빛과 진리를 받지 못해 구원 얻지 못한 자연인을 뜻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으로 여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지 못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 중에는 여러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자가 있습니다. 많은 신을 인정하고 이를 믿는 다신론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만 계시지 유한한 인간으로서 알 수가 없다고 주장하는 불가지론자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성경대로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며 혼합되고 거짓된 교리와 사상을 믿는 혼합주의자가 있습니다. 온갖 사이비 이단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육에 속한 사람으로서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둘째는,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를 가리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으로 거듭났으나 성숙되지 못한 신앙 상태에 있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행하기보다 자연인의 본성에 더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리하여 육신적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믿음의 진보와

향상이 없습니다. 시기심으로 일하며 분쟁을 일으키고, 원망을 잘하고 불만스러운 말 전하기를 좋아합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습니다.

셋째는, 신령한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들의 생활 현장을 떠나 깊은 산 속이나 외딴곳에서 생활한다고, 금욕과 고행을 한다고 신령하게 되지 않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신학을 공부한다고 해서 신령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신령한 사람이 되는 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으로 거듭나야 신령한 자가 됩니다. 물론 거듭난 자가 되었다고 하여 모두 신령한 사람은 아닙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를 면하지 못한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신령한 사람은 회중예배에 참석하며 신령한 말씀 듣기를 사모합니다. 예배와 봉사를 중요하게 여기고 세상일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이는 세상에서 많은 여러 가지 임무를 성실하게 행해야 하긴 하지만 세상 것에 과도한 욕망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신령한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 영적으로 날로 성숙해 갑니다. 말씀을 듣고 배운 대로 행합니다. 신령한 분별력이 있어서 모든 일에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를 압니다.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옳게 판단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가치 기준이 온전히 성경적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판단은 정확하여 다른 사람의 판단을 받지 아니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으로 일생을 마치는 인생보다 불행하고 가련한 사람은 없습니다. 설혹 그가 세상의 부귀공명을 다 누렸다 해도 그러합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많은 세월을 낭비하고 허송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신령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어진 세월에 영원한 의미와 가치를 더하고, 다른 사람의 귀감이 되는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와진리교회)

홈페이지 : www.ucts.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2017학년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신·편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여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은 사명은 있으나 지역적, 시간적 여건 등으로 출석 수업을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신학과정입니다. 소명 의식을 가진 분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입학할 수 있으며 본인 스스로 온라인(인터넷)으로 교과목을 수강하여 이수학점을 취득함으로써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자격

학 과	수업연한	지원자격
신학과 (신입생)	3년 6학기 (140학점)	1. 만18세 이상인 성인 남녀 2. 소명 의식이 있는 자 3. 신앙경력 5년 이상인 자
신학과 (편입생)	2년 4학기	1.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2.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하는 자는 이수한 학점에 따라 학년 결정

2. 제출서류(각 1통)

-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또는 전화 요청시 우편발송
- ② 최종학교 졸업 및 졸업 예정 증명서
- ③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 편입생
- ④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⑤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⑥ 반명함판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3. 전형안내

- ①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② 서류심사 및 면접 : 수시
- ③ 전형료 : 20,000원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37-04-005354 (예금주 사이버신학연구원)

4. 접수방법

- ①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여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졸업 후 전도사 임명자격 부여
- ② 총회목회대학원 입학자격 부여
- ③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교무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무처 : 02)2678-5181
e-mail : ucts5181@naver.com

-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무처 02)2678-5181

2017학년도 총회목회대학원 상반기 계절학기 개설 안내

- 일 시 : 2017년 7월 10일(월) ~ 13일(목) 3박 4일
- 장 소 : 본 대학원 301호 강의실
- 등록마감 : 2017년 7월 7일(금) 17:00
- 문 의 : 02)2677-0692~3(본 대학원 행정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목회대학원 원장 목사 임종달

총회신학교 후원에 다같이 참여합시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신학교후원회
계좌번호 농협 302-0928-2103-51 / 예금주 임종달

복음화대성회 및 원로목회자 체육대회

오는 7월 4일 장충체육관에서 4천여 명 참석

한국기독교원로목회자재단(이사장 임원순 목사)이 주최하고 2017년 8천만 민족복음화대성회 조직위원회(명예총재 이태희 목사)·한국기독교스포츠통연협회·한국기독교평신도총연협회 공동주관으로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2017년 8천만 민족복음화대성회 및 원로목회자 체육대회'가 오는 7월 4일(토) 오전 10시 장충체육관에서 개최된다.

이번 대회는 '우리가 다시 세계 하소서'라는 슬로건으로 지난해보다 1천명 더 많은 4천여 명이 모여 민족복음화대성회와 체육대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2017년 8천만 민족복음화대성회'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 받은 특별한 축복을 상기하면서 '나라의 안정'과 '경제 성장', '북핵 포기'와 '평화통일', '위정자'와 '국민'을 위해 기도하여 '민족복음화'를 통해 새로워지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원로목회자들이 함께 한마음으로 기도할 예정이다.

성회는 한국기독교의 현주소를 냉철하게 통찰해 회개하고, 하나님중심 말씀중심의 신앙



으로 회귀하자는 의미에서 기독교의 부흥을 이끌어 왔던 각 교단 및 단체 원로목회자 등 많은 원로들이 참여한다.

8천만 민족복음화대성회에 앞서 1부에 복음기수와 찬양팀의 인도로 원로목회자들이 뜨겁게 은혜 받으며 불렀던 찬송 중심의 찬양제로 진행하고, 원로목회자찬양단의 특별찬양을 준비하며 2부 대성회는 한국기독교 역사와 세계 역사상 유례없었던 원로목회자 최대성회로 하나님께 감사·찬양·기도를 올려드리는 감격적인 행사가 될 것이다.

특히 이번 8천만 민족복음화대성회는 종

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초창기 한국교회 부흥을 이끌어왔던 원로목회자들이 남은 기력을 다해 다시 한번 앞장서서 민족복음화에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3부 체육대회는 '체력이 곧 영광'이라는 취지로 원로목회자의 사역 일선에서 물러나신 후 급속도로 체력이 저하되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강한 육체와 정신을 관리하는 일에 소홀해서는 안 될 것이기에 이벤트 체육경기를 통해 웃음과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마련했다.

“종교인 과세, 공감할 기준 나와야”

한교연, 종교인 과세 여론 호도 받아들일 수 없어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정서영 목사, 이하 한교연)은 지난 5월 31일(수)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 시기를 2년 늦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하여 견해를 밝혔다.

한교연은 논평에서 “종교인 과세는 지난 정부에서 2년 유예기간을 둔 후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으나 2년이라는 기간 동안 정부는 시행에 따른 여러 문제점에 대해 개선안을 내놓거나, 종교계와의 의견을 조율하는 등의 노력을 하지 않았음”을 지

적하고 “이런 상태에서 지난 정부가 발표한 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경우 혼란과 마찰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종교인 과세를 시행하려고 한다면 우선 과세 대상자인 종교인 모두가 공감할만한 과세 기준이 나와야 한다면서, 기재부가 이런 최소한의 노력도 없이 내년 1월 시행을 고수하기 위해 과세기준을 일방적으로 정하고 무조건 따르라고 한다면 수용할 수 없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또한 시행을 불과 5개월 앞두고 오는 7월부터 설명회를 갖겠다는 것도 종교계와의 소

통과 협의, 미흡한 준비과정에 대한 재검토가 아닌 곧 시행에 들어가기 앞서서 따르라는 식의 일방적인 홍보를 위함이라면 더욱 협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교연은 “기독교는 이미 많은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거나 납부대상이 아닌 미지침교회 목회자들이 80% 이상”임을 강조하고, “그런데도 마치 모든 목회자들이 납세의 의무를 거부하고 호의호식하고 있는 것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일부에서 종교인 과세예외를 우리 사회의 오랜 적폐라고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결코 받아들이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국교회기도운동본부 제1회 기도회

‘한국교회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제로

한국교회기도운동본부(총재 송진태 목사는 지난 5월 25일(목) 오후 2시 종로5가 한경직목사기념의집에서 제1회 기도회 및 감사예배를 주며 한국교회를 회복시켜 주옵소서(시 80:7) 만 주제로 가졌다.

기도회에 앞서 드려진 예배는 권경주 목사의 사회로 사랑의교회 오현식 목사의 기도, 순복음세계비전교회 유미경 목사의 특송, 삼인회장 신상철 목사의 시 51:1-5 말씀을 본문으로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했다.

이어서 찬양사역자 홍선화 권사의 헌금송, 본회 사무총장 이철민 목사의 헌금기도, 대표회장 은성일 목사의 인사 및 광고, 총재 송진태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계속해서 2부 기도회는 회개와 성령 충만이라는 기도제목으로 삼인회장 서삼석



목사가 '나라와 민족·대통령과 정치지도자·한국교회 10만 영적지도자를 위하여', 삼인회장 신정현 목사가 '동성애법 차별금지법 입법저지와 이슬람 세력확장 퇴치를 위하여' 삼인회장 류신철 목사가 '한국교회기

도운동본부의 발전과 회원들의 사역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다.

한국교회기도운동본부는 막힌 답을 오직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해결받고 오직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기도를 위해 모인 단체이다.

통합·합동, 종교개혁 500주년 공동심포지엄

루터의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개혁신교회의 전통을 따르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통합과 합동 양 교단은 공동으로 두 번의 심포지엄을 개최하기로 했다. 이번 1차 심포지엄은 통합교단에서 주관해 연동교회 예배당에서 6월 15일(목) 오전 11시에 개최된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한 한국교회의 현실과 나아갈 길”이란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심포지엄에서 임성빈 목사(정로회신학대학교 총장)가 주제 발제를 하고 합동 교단에서 논전을 맡게 될 예정이다. 2차 심포지엄은 합동교단 주관으로 2017년 7월 19일(수) 오전

11시 승동교회 예배당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양 교단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양 교단의 교류와 협력 관계가 증진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종교개혁의 정신을 이어받아 한국교회의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심포지엄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교회건강연구원, 소그룹필독지침서 출간

건강한교회만들기 위한 소그룹 리더훈련도 가져



교회건강연구원(이효상 원장)은 소그룹필독지침서인 '역동적 소그룹! 관계의 벽을 넘어라'를 출간하고 지난 5월 26일(금) 서울 종로구 연지동 기독교연합회관 17층 강당에서 '역동적 소그룹, 관계의 벽을 넘어라'라는 주제로 구약장, 관할, 소그룹지도자, 속회 및 임원 등을 초청하여 소그룹 리더훈련을 가졌다.

이사장 신상현 목사(울산미도교회)는 “건강한 소그룹이 건강한 교회를 만든다”라며, “교회건강연구원이 21세기 목회 방향이자,

대안이라 할 수 있는 소그룹 리더들을 격려하고 실제 적용을 제시하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를 향한 헌신의 씨앗과 노력이 될 것”이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날 주제강연에 나선 이효상 원장은 “시대가 달라졌다. 한 사람이 모든 것을 주도하고 진행하는 시대는 지나갔다. 타자 간의 소통과 나눔을 통해 연합하고 합의하는 시대이다. 소그룹은 모두가 주목하고 함께 동등한 위치에서 시작한다. 그래서 이 시대 교회의

대안은 역동적 소그룹에 달려 있다. 그러나 소그룹이 있는 교회와 소그룹 중심의 교회가 다르다.”라며 강의를 시작했다.

이날 출간된 <역동적 소그룹! 관계의 벽을 넘어라>는 26페이지의 신국판 도서로 구체적 자료를 첨부하여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세미나의 현장 강의를 넘어 소그룹 필독 지침서로 널리 보급될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원은 계속해서 교회건강 시리즈를 출판하는 등 교회와 사회의 방향성과 대안 제시, 그리고 다양한 콘텐츠의 개발과 제공을 통해 건강한 기독교 문화 형성에 기여하며, 건강한 교회로 가는 사역을 돕는 '목회발전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연구원은 계속해서 6월 29일(목) 기독교 연합회관 강당에서 '세대교체기의 한국교회, 리더십회복'을 주제로 정기 열린목회광장을 열고, 전임과 후임의 지도력 계승' 최이우 종교교회 목사와, '건강한 교회를 향한 패러다임 쉬프트' 양혁승 연세대 경영학 교수, 위기와 갈등을 넘어서는 지도력회복 김관선 산정현교회 목사 등이 나설 예정이다.

구세군 다문화센터, 사랑의 쌀 전달식



구세군 다문화센터(센터장 최혁수)는 안산시 법무부 법사랑 상록지구 위원회(회장 김필호 안산그리너스 FC대표)로부터 10Kg 쌀 100포, 총 1000Kg을 후원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5월 27일(토) 안산시 원곡동 만남의광장 급식 장소에서 소외된 이웃을 위한 구세군 다문화센터와 법무부 법사랑 상록지구 위원회의 '사랑의 쌀 전달식'이 있었다.

이날 위원회 박용찬 사무처장은 “한산시에 많은 이주민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우리 이웃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구세군 관계자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이주민들의 어려운 상황을 돕는데 쓸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방면으로 지원방범을 모색해 이들의 소통과 화합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미용, 장수사진 등 어르신에게 사랑의 뷰티서비스

(사)월드뷰티핸즈, 가평 웰빙노인전문요양원에서

국제뷰티구조개발 NGO (사)월드뷰티핸즈(WBH)이사장 정현일)는 지난 5월 25일(목) 가평 열린복지재단 웰빙노인전문요양원(대표 원종분)에서 요양하는 어르신들을 모시고 '사랑의 뷰티서비스'를 실시했다.

월드뷰티핸즈 회장인 최에스터 교수(신한대)와 김연미 대표(예술아트스트)의 뷰티서비스와 WBH베트남지회에서 한국을 방문한 베트남 대학생 기수인 응아 양이 한국전통민요 등을 불러 위로와 기쁨의 시간을 가졌다.

월드뷰티핸즈는 전국적으로 노숙자와 독거노인,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한 뷰티서비스 활동과 다문화 가족, 북한 동포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뷰티기술교육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베트남을 중심으로 아시아, 아프리카를 포함한 저개발국 주민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확대시켜 진행하고 있다.

월드뷰티핸즈는 이어 31일에는 서울역 노숙자 해돋는마을에서, 6월 3일에는 한중 사랑교회 중국동포 뷰티서비스 및 장수사진 촬영을 6월 7일에는 신수동사무소에서 독



거노인 뷰티서비스와 장수사진 촬영을 실시했다.

(사)월드뷰티핸즈는 K-뷰티 헤어미용, 메이크업, 피부미용, 네일, 화장품 등 5대 분

야의 전문 교수와 기관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1365 자원봉사 인종기관으로 뷰티자원봉사자 신청을 받는다.

문의메일 wbhngo@naver.com

염소은행 사단법인 허가 감사예배 드려

국제동역자네트워크, 선교활동 활발

국제동역자네트워크(대표회장 정원기 목사, 상임회장 박태남 목사 이하 GYN)는 지난 5월 14일(주일) 오후 4시 흥광교회에서 인천 흥광교회, 정동번영교회, 청라세계비전교회 성도들이 참여한 가운데 염소은행 사단법인 허가 감사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는 GYN상임회장 박태남 목사의 사회로 공동회장 김성현 목사의 기도, 청라세계비전교회 워십팀의 특송, 정원기 목사의 '천한 사마리아인'이라는 제목의 설교, 문은수 목사(마침김리교회)의 축사 순으로 드렸다.

계속된 예배는 번영교회 김두환 장로의 봉헌기도, 총괄이사 이찬하 목사의 선교 보고후 최현기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GYN은 그동안 르완다, 우간다에 염소 1천 마리, 송이 15 마리, 닭 2천 마리를 지원했으며 우간다 나카우까명성교회(현광식 선교사) 성전건축감사예배를 드렸으며, 르완다 무호노교회 성전건축을 청주은성교



원을 헌금 했으며, 또한 르완다 무큐우교회 건축을 위해 흥광교회, 수원명성교회, 정동번영교회에서 3천 5백만 원을 헌금해 지난 2015년 12월 7일 성전건축예배도 드렸다.

이밖에도 우간다 나카우까명성교회(현광식 선교사) 성전건축감사예배를 드렸으며, 르완다 무호노교회 성전건축을 청주은성교

회 후원(4천만원)으로 완공해 오는 9월 성전건축예배를 드릴 예정이다.

GYN은 계속해서 우간다 구루지역 예수마울에 청라세계비전교회 후원(2천만 원)으로 성전건축을 완공했으며 구루지역 중화교회 정동번영교회 후원(2천만 원)으로 오는 9월에 완공해 감사예배를 드릴 예정이다.

‘성경을 받고 나의 증인 되리라’

부산지방회

부산지방회(회장 조병희 목사)는 지난 5월 28일(주일) 오후 5시 순복음반송교회에서 한요한 전도사(순복음소망교회), 홍찬일 전도사(순복음반송교회)에 대한 목사안수 및 임직예배를 드렸다.

1부 예배는 총무 김태주 목사(순복음부산우리교회)의 사회로 시작되어 부회장 한순남 목사(순복음반송교회)의 기도, 김태주 목사의 성경봉독, 안수위원장 이종분 목사(글로벌교회)의 행 1:8 말씀을 본문으로 한 ‘성경을 받고 나의 증인 되리라’라는 제목의 설교 순으로 드러났다.

2부 임직식은 김태주 목사의 사회로 지



방회장 조병희 목사(기장순복음교회)의 서약과 안수 및 착의, 악수례, 공포 순으로 진행되었다.

안수위원으로는 한병진 목사, 정기영 목사, 박용호 목사, 고영권 목사가 함께 하였

며, 이태규 전도사(순복음반송교회)의 특주, 증경회장 한병진 목사(은혜평화교회)의 축사, 증경회장 정기영 목사(순복음세움교회)의 권면, 이종분 목사의 축도로 임직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쳤다.

“마지막 시간에 부름 받은 일꾼처럼 일할 것”

광주지방회

광주지방회(회장 장영기 목사)는 지난 5월 27일(토) 오전 11시 새샘물교회에서 장지선 전도사(새샘물교회)의 목사안수 및 임직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는 총무 조은주 목사의 사회로 부회장 최정식 목사의 기도, 재부 박우진 목사의 성경봉독, 회장 장영기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장 목사는 마 20:1~16 말씀을 본문으로 ‘마지막 시간에 부름 받은 일꾼’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늦게 시작한 목회이지만 마지막 시간에 부름 받은 일꾼처럼 최선을 다하는 충성된 종의 사명을 다 할 것”을 당부했다. 설교 후에는 회계 배영례 목사의 헌금



도, 서약과 안수 및 공포 및 증경회장 주영영 목사의 권면, 증경회장 조원재 목사의 축사가 이어졌으며, 총회장 김양인 목사의 축도

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예배 후에는 새샘물교회에서 준비한 선물과 풍성한 오찬을 통해 행복한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성령을 좇아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자!

전북서지방회

전북서지방회(회장 박성규 목사)는 지난 5월 19일(금) 부안순복음교회(담임 홍종학

목사)에서 월례회를 갖고 지방회 회무를 처리했다.

이날 1부 예배는 총무 양희철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부회장 심혜원 목사의 기도, 서기 김현배 목사의 성경봉독, 김철성 목사의 갈 5:16 말씀을 본문으로 한 ‘성령을 좇아 행하라’라는 제목의 설교, 회계 박운석 목사의 헌금기도, 김철성 목사의 축도 순으로 드러났다.

이어 2부 월례회에서는 지방회 각종 회무를 처리하고 부안순복음교회에서 준비한 풍성한 애찬을 나누며 은혜 가운데 월례회 모든 순서를 마쳤다.



한정숙 전도사 목사안수 및 임직예배

충남지방회

충남지방회(회장 오승욱 목사)는 지난 5월 27일(토) 오전 11시 예수시랑교회(담임 한정숙 전도사)에서 한정숙 전도사의 목사안수 및 임직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충성을 다하여 감당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예배는 총무 전홍식 목사(순복음삼기교회)의 사회로 시작하여 부회장 노우석 목사(영안교회)의 대표기도, 서기 윤옥 목사(성신순복음교회)의 성경봉독에 이어 강태순 목사(순복음기적교회)가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어 지방회장 오승욱 목사(천안서북교회)는 갈 4:35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신다”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은혜,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있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항상 매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으로 함께하시는 여호와 심미의 복을 받아야 할 것”을 전하며 임직자와 참석자를 축복했다. 재부, 회계 오장득 목사(신일복음교회)의 헌금기도 후 예수시랑교회 마하나임찬양단의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다.



안수식은 오승욱 목사(천안서북교회)의 인도로 진행되었으며 안수위원 오일선 목사, 황수남 목사, 임영신 목사, 원봉정 목사의 안수, 성의직용, 지방회장의 공포 후 임직증서, 임직패를 수여했다. 증경회장 오일선 목사(순복음포도원교회)의 권면, 증경회장 조원익 목사(추계교회)의 축사, 김라함 전도사(사랑의 순복음교회)의 축사에 이어 임직자 한정숙 목사의 인사말 후 증경회장 류상준 목사(순복음아울림교회)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으며 지방회 전회원과 참석자들은 한정숙 목사의 임직을 축하했다.



조명식 목사, 미국 코헨대 교육학 박사 학위 수여

경남지방회

경남지방회(회장 황용연 목사) 김해 새장유제일교회 조명식 목사가 지난 5월 26일(금) 미국 코헨신학대학교(Cohen University & Theological Seminary, 설립자 강신권 박사, 총장 로날드 밴더메이 박사, 이하 코헨대) 대강당에서 개최된 제29회 졸업식에서 ‘앨범의 태평환에서 은혜의 태평환’이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교육학 박사를 받았다.

이날 졸업식에서는 피드먼트대학교(Piedmont University, 총장 윌리엄 스티븐 박사, 이하 피드먼트대) 졸업식도 함께 진행됐다. 이번 졸업식에서는 미국, 러시아, 한국, 미얀마, 베트남, 중국, 몽골리아, 타이완, 필리핀, 일본, 인도네시아, 브라질, 페루, 아프리카 등 총 123개 국가 코헨대 분교로부터 학사 125명, 석사 55명, 박사 33명, 명예박사 10명 등 총 223명에게 학위가 수여됐다.

이날 졸업식은 로날드 밴더메이 코헨대 총장이 개회기도를 한 후 개회전송 ‘그린란드’의 일출산(Greenland's Joy Mountain)을 다 함께 합창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이어 코헨대 명예 총장 게리 코헨 박사가 말씀을 전했다. 게리 코헨 박사는 ‘최고의 자리를 묻는 질문’ (마 10:35-37)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졸업생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특권과 사명인 생명의 복음전파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한우 총장(브라질 코헨대 분교)의 사회로 진행된 학위수여식에서는 코헨 박사와 함께 코헨대와 학사교류를 체결한 피드먼트대의 윌리엄 스티븐 총장, 로날드 코헨대 밴더메이 총장, 코헨대 이사장 미셸 강 박사, APU(American Premier University)의 알렉스 파시아 총장 등이 학위를 수여했다.

학위 수여식 후에는 코헨대 설립자 강신권 박사가 특별상을 수여하는 순서가 이어졌다. 성직우수상은 일본의 유끼가이와 학사에게 수여됐다. 미셸 강총장, 게리코헨 박사 등은 축사를 전했다. 특별히 이날 졸업식에서는 아시안 캠퍼스 총장인 임복만 박사가 참석하여 축도함으로 모든 순서가 마무리됐다. 한편 코헨신학대학교는 유대계 미국인이

며 세계적인 성경 신학자 게리 코헨(Gary G.Cohen) 박사가 역사신학자 로날드 밴더메이 박사, 실천신학자 윌리엄 케인 박사, 조직신학자 강신권 박사와 함께 1987년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을 기해 설립한 ‘정통보수 신학과 세계선교신학’을 지향하는 신학교로서 세계 153개 국가에 신학교를 세우는 ‘비전153 월드미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현재 123개 국가에 분교를 세웠으며 조만간 아프리카 케냐 등 더욱 늘어날 예정이다. 총 졸업생은 약 7,800여 명에 이르며, 그 중 25명의 총장을 배출했고, 현재 8,000여 명의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다.

또 이 대학은 1988년 9월 미국 장로교 BPCA 교단으로부터 총회신학교로 인준 받았고 1999년에 캘리포니아 주정부 교육국으로부터 기독교 종합대학교로 승인받았다.

이광우 전도사 목사안수 및 임직예배

경기남지방회

경기남지방회(회장 신동숙 목사)는 지난 5월 27일(토) 오전 11시 이광우 전도사(새생명교회)의 목사임직식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로 53 정자별산블루밍아파트 2상가 3층 순복음새생명교회에서 가졌다.

1부 예배는 박용영 목사(오성시랑교회)의 사회로, 김진태 목사(선한열매교회)의 찬양인도, 증경회장 최병일 목사(선한열매교회)의 기도, 증경회장 김남수 목사(한빛교회)의 성경봉독, 지방회장 신동숙 목사의 설교 순으로 드러났다.

신 목사는 록 14:25-33 말씀을 본문으로 ‘제자가 되는 삶’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환난과 핍박을 이기는 다윗과 선전처럼 되기’를 임직자와 모든 회원에게 당부했다.



2부 순서는 김남수 목사의 진행으로 안수식을 가졌으며 안수위원장에 회장 신동숙 목사, 안수위원으로는 증경회장 정석현 목사, 김기인 목사, 최병일 목사가 참석한 가운데 안수, 악수례, 공포 및 임직패 수여식으로 진행되었다.

3부 순서에는 권면과 축사로 증경회장 정석현 목사, 김기인 목사가 더욱 훌륭한 주의 일꾼이 되기를 당부하며 함께 축복의 메시지를 전했다. 김효신 목사의 헌금기도에 이

어 6기 목회대학원 동기생들의 특송으로 축하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으며 끝으로 지방회장 신동숙 목사의 축도로 임직예배순서를 마쳤다.

이광우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참여한 모든 분들께 감사하며 새생명이 남재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임직예배를 마친 후에는 새생명교회에서 준비한 오찬을 함께 하면서 축하하고 교제를 나누며 모든 행사를 은혜 가운데 마쳤다.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르는 삶 다짐

인천지방회

인천지방회(회장 이창모 목사, 인천국제순복음교회)의 2017년 목사안수 및 임직예배가 지난 5월 20일(토) 오전 11시, 순복음연약교회(담임 윤현원 목사)에서 지방회 임원과 많은 축하객들의 축하를 받으며 드러져 임직 받은 강태순 목사는 맡겨진 목회 사명을 위해 충성을 다짐했다.

이날 1부 예배는 총무 송준호 목사(순복음사랑의교회)의 사회로 시작되어 서기 조성진 목사(충만교회)의 기도, 사회자의 성경봉독, 신학교 동기인 박주선 목사 외 4인의 특송, 증경회장 박금출 목사(순복음소명교회)의 설교 순으로 진행되었다.

박 목사는 마 16:24-28 말씀을 본문으로 ‘제자의 자격’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임직자를 축복했으며 회계 이한숙 목사(사랑순복음교회)의 헌금기도, 김라함 전도사(사



랑의순복음교회)의 헌금찬송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어 2부에서는 안수위원장이 지방회장 이창모 목사의 집례로 안수위원 박금출, 심재덕, 심현일 목사(한빛교회)와 함께 서약과 안수기도, 착의 및 악수례, 공포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3부에서는 십자덕 목사(증경회장, 주안복음교회)의 권면과 심현일 목사(증경회장, 임마

누엘 순복음교회)의 축사가 이어졌으며 이어 임직자 강태순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선후배 목사님들과 가족 친지 및 참여해 주신 모든 이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 후 이창모 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목사안수 및 임직예배를 드린 후에는 한식보리밥부페식당에서 오찬을 함께 하며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었다.

기독교문화예술
진단

이상열 목사 // (사)한국기독교문화예술원 이사장, 한국크리스천문화학협회 이사, 전 서울예술신학교 학장, 전 바기오예술신학대학교 총장

예술선교의 신학적 배경 ①



1. 교회의 존재 근거

한국의 기독교인 수는 일천 아백만에 달한다고 한다. 남한의 인구 비례로 따지면 네 사람 중에 한 사람 꼴이다. 놀라운 성장세가 아닐 수 없다. 한 집 건너 노레방이요, 서너 집 건너 교회당이랑 딸이 그럴싸하게 들린다. 이처럼 교회가 늘어간다는 것은 조금도 나쁠 게 없다. 오히려 감사해야 할 일이다.

하지만 문제는 교회가 늘어가는 만큼 세상이 조금씩은 달라져야 할 터인데,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는 데 있다. 퇴폐·폭력·마약·절도·강간 등 사회악은 갈수록 기승을 더해 가고 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교회가 외형적으로 급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즉, 사회의 어두운 구석을 밝히는 빛의 구실과 썩어가는 부분을 막아줄 조금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회의 존재 이유를 새삼 묻지 않을

수 없다. 교회는 결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를 묵적화시켜서는 안 된다. 교회를 건설하는 일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 교회는 경건한 의식에 참여함으로써 이른바 종교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곳은 아니다. 더구나 점잖은 선남선녀들이 사교를 위해 모이는 장소는 더욱 아니다. 교회는 오히려 먼저 '하나님을 위한 교회'이며, 동시에 '세상을 위한 교회'이다. 교회는 '하나님을 위한 교회'가 될 때만 이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고, 또 '세상을 위한 교회'가 될 때만이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결코 자기 영광을 위해 자기목적화시켜서는 안 된다. 교회는 먼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존재함과 동시에 '세상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다. 이 양자는 동일한 것이다. 그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만을 기리는 예배단체이며, 동시에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는 선교단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세상을 향한 선교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 마치 동전

의 양면처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리스도는 교회 안에서, 또 교회를 통해서 세계 속에 현존하고 역사하시는 것이다. "불지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마 28:20)는 것이 그것이다.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예배(수직적 만남)와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선교(수평적 만남)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공동체적 삶을 성령 안에서 역동적으로 엮어가야 한다. 그런데 오늘의 교회는 이 같은 두 가지 요소를 기능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본다. 즉, 예배가 예배로서의 본래적인 성격보다는 한갓 의식으로서의 예배에 그쳐 버린다는가, 선교가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보다는 '예수 전당' 하는 식의 공허한 구호에 머무는 '울리는 황과리' 여서는 안 되겠다는 말이다. 여기서 우리는 선교의 대상인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새롭게 해야 할 줄로 안다.



백석대, 취업지원 서비스 최고등급 받아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사업평가 '우수'

백석대학교(총장 최갑중) 대학창조일자리센터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시행한 '2016년도 대학창조일자리센터 1차 연도 사업평가'에서 우수등급에 선정됐다.

대학창조일자리센터는 고용노동부에서 우리나라 청년들의 진로지도, 취업지원 강화를 목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백석대학교는 천안·아산권을 거점으로 본교 재학생은 물론 졸업생, 타 대학 재학생과 일반 청년들을 대상으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백석대학교는 사업평가에 앞서 학교차원의 재정적, 행정적 지원과 교수들의 적극적 학생지도 등으로 우수, 보통, 미흡 세 단계 중 최고등급인 우수등급에 선정됐다.

백석대학교 대학창조일자리센터 박정관 센터장



은 "우리 대학의 대학창조일자리센터가 좋은 등급을 받은 것은, 대학 구성원들의 노력과 함께 성공적인 취업을 갈망하던 학생들의 관심과 노력 덕분"이라며 "학생들이 더욱 만족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백석대학교는 지난 1월 교육부가 대학알리미를 통해 공시한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2015

년 12월 31일)에서 65.7%를 기록해 졸업생 3천 명 이상을 배출하는 전국 '가'그룹 4년제 대학 중 비수도권 대학에서 취업률 1위를 달성하기도 했다.

한편, 백석대학교(총장 최갑중)와 백석문화대학교(총장 장종현)는 지난 5월 25일 주식회사 신한은행과 신한협력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기관 간 교류 확대, 상호 발전을 위한 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목적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동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금융관련 사업의 공동 추진 △상호 교육 및 교육지원 △재학생의 현장실습장소 제공 등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양대학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각 기관이 동반성장할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학생들의 실습, 취업 등에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포커스 / 성경적 경제부흥 4

최정식 목사(순복음복된교회)



가난을 극복하는 방법

누구나 가난을 원하는 사람은 없지만, 세상에는 부자보다 가난한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가난을 벗어나기 위한 해결책은 성경적 경제부흥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부흥(復興 REVIVAL)이란? 다시 일으키는 운동이요, 살리는 운동이다. 실패한 자, 낙심한 자에게 부활의 꿈과 새로운 희망을 갖도록, 생각을 바꾸어 주는 희망운동이다. 성경적 경제부흥은 가난한 주의 백성들을 부요케 하는 경제 노예해방운동을 하는 것이다.

경제부흥은 생각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생각 속에 잠재해있는 가난의식, 저주의식, 절망의식 등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도록 긍정적인 부요의식으로 바꾸어 한다. 왜냐하면 긍정적인 생각은 복 받을 그릇이요, 욕도와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독일의 유명한 경제윤리학자요 독일부흥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프리드리히리스트(Friedrich List)는 "정신적인 자원이 없는 물질의 부흥은 없다"고 했다.

미레학자 앨빈 토플러는 '부의 미래'라는 책에서 "한두교나 불교에서는 욕망을 채우기 보다는 줄이거나 버림으로써 행복을 추구하라고 가르치고 있다"면서 "한두교가 대부분인 인도는 가난의 미덕을 강조하는 사상 덕분에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된 가난한 나라로 지내왔다. 그러나 기독교는 재물의 종교로서, 열심히 일하고, 절약하고,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는 가치관을 받아들여 서양의 많은 국가는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단순히 욕망을 부추기고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사실 경제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돈이다. 돈을 살아가는데 절대적 요소가 되기 때문에 사람이 돈이 없고 수입보다 지출이 많으면 가난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5가지 원칙을 잘 지켜야 한다.

1. 열심히 일하여 돈을 많이 벌라.

성도들이 열심히 경제활동을 통해 직업과 소명을 감당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요, 이것이 성경적 경제생활의 궁극적인 개념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게으른 자를 싫어하신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먹을 것을 여름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잠 6:6-8)

하나님은 왜 하필 개미에게 배우라는 것일까? 개미는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버섯농사를 지어 겨울을 준비하기 때문이다.

"사람의 부기는 부지런한 자의 것이니라" (잠 12:27) 일할 수 있을 때 부지런히 일하여 돈을 많이 벌어야 가난을 벗어나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이 무엇일까요? '돈이 이것이 다!' 라고 정의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돈에 대해, 부자에 대해 알아야 한다. 돈은 인간이 발명한 가장 탁월한 발명품으로 오늘날 세계인의 최

고 관심사는 돈이고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도 돈이다. 지금의 세계질서는 돈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돈은 교환력(交換力)과 평가력(評價力)과 범죄력(犯罪力)의 놀라운 힘과 부자와 소비라는 소통의 기능이 있다. 또한 돈은 상상력이 있다. 마 19:16-24 말씀에서 부자청년은 제자들에게 "약대가 비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하였다. 히 13:5 말씀에서는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경고한다. 돈을 사랑하면 주일날도 돈 벌러 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담전 6:10 말씀에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돈을 벌면 돈을 일만 선의 뿌리가 되게 한다.

2. 돈을 사용할 때 우선순위를 정하라.

돈을 쓸 때 부자와 보통사람의 다른 점은 부자는 '예매한 지출'은 안 한다. 그러므로 같은 돈이라도 먼저 쓸 돈, 나중 쓸 돈, 써도 되고 안 써도 될 돈, 꼭 써야 할 돈을 구분하여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용하면 쪼들리지 않고 불필요한 지출을 방지할 수 있다.

3. 소득을 늘려라.

소득에는 두 종류의 소득이 있다. 직업과 노동을 통한 소득이다. 이것은 각자의 능력에 따라 소득이 다르다. 다른 한 가지는 권리소득이다. 장자의 권리, 부자 부모의 재산을 합법적으로 상속받는 유산이다.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잠 19:14)

수입보다 지출이 많으면 절대로 경제부흥이 일어나지 않는다. 기존의 소득에서 수입을 늘리는 것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다. 이때 때는 지출을 줄이는 것이 더 쉽다. 내가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수성가로 부자가 된 사람들의 공통점은 근검절약이다.

4. 자잘한 돈 씀씀이를 조심하라.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은 잔돈을 우습게 여기지만, 부자들의 특징 중 하나는 푼돈 관리를 잘한다. 쓸 것 다 쓰면서 부자가 되겠다는 것은 먹을 것 다 먹으면서 살겠다는 생각이나 마찬가지다.

5. 가계부를 쓰라.

천국 가는 데도 길이 있듯이(요 14:6) 돈도 다니는 길이 있다. 가계부는 우리 가정 경제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경제지도다. 가계부를 쓰기 시작하면 우리 집에 돈이 어디서 들어와서 어디 어디를 지나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 있다. 어떤 돈은 나가서 안 들어오고 어떤 돈은 나갔다가 새끼를 쳐서 다시 들어오는 가하면, 불필요하게 돈이 새나가는 구멍이 있고, 고정적으로 새나가는 구멍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많은 돈을 가지고도 규모 없이 사용하면 항상 쪼들리는 삶을 면치 못한다. 그러나 적은 돈을 가지고도 규모 있게 관리하여 사용하면 저축할 돈이 생긴다는 사실이다. 가계부를 3년만 성실하게 써보라 가난을 벗어날 수 있는 종자돈이 생기는 경제부흥의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이런 복을 받으시길 축복한다.

다음 시간에는 빚(부)에서 쉽게 벗어나는 비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

- 다음호에 계속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경기남지방회

혈몬산교회 부흥회 및 철야기도회

선교사 기도의 쉼터, 청소년사역 기도처

혈몬산수양관교회에서는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지속적으로 교회 새성전에서 부흥회와 매주 금요일 철야기도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선교사님들이 마음껏 기도하며 쉬어갈 수 있도록 선교사 기도의 쉼터, 청소년 사역을 위한 기도처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찬양과 기도로 문제해결 받고 기도의 사람으로 무장을 원하는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장소 및 문의

혈몬산교회(담임 김남순 목사)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마도로 181번길 91-16
(백곡리 산 113번지) 010)2415-2062



김남순 목사
혈몬산교회 담임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대하 7:14)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제66차 총회

총회장 김양인 목사 취임 감사예배

설교



조용목 목사
은혜와진리교회 담임
교단 정책위원장

담임



김양인 목사
목양제일교회 담임
교단 총회장

일시 2017년 6월 12일(월) 오전 11시

장소 목양제일교회(담임 김양인 목사)
광주광역시 광산구 목련로 372-25(광산구 신가동 592-11)
교회 : 062)973-0857

초·대·의·글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금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님과 증경총회장님들을 모시고 총회장 취임감사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뜻깊은 자리에 총회원 여러분들을 초대하오니 바쁘신 중에도 오셔서 함께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본 광고 지면으로 초대장을 대신하오니 양해바랍니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주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교단 전국사모연합회 제7차 정기총회를 은혜가운데 마치게됨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전국사모연합회


고문 최해선 다락방교회


고문 김양숙 은혜와진리교회


증경회장 김양란 안디옥교회


증경회장 차경애 진주은평교회


증경회장 김영숙 순복음거제중앙교회


증경회장 신동신 청신교회


직전회장 차추련 안동성곡교회


회장 한정은 가평순복음교회


수석부회장 윤금자 목양제일교회


1부회장 한옥현 광양은혜와진리교회


2부회장 박경미 순복음승리교회


총무 김귀순 아세아순복음교회


부총무 신순철 순복음제일교회


서기 배은복 순복음소망교회


부서기 김세희 충북괴산교회


회계 신명희 부강순복음교회


부회계 김병희 은혜와승리교회


재무 김숙향 안성평강교회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전국사모연합회

회장 한정은
총무 김귀순 (010-8973-4250)



영신상조(장례전문) 100% 후불제

(주)안양장례식장 경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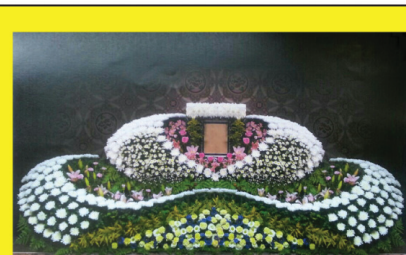
30년을 믿음 안에서 장례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온 영신상조는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최저의 비용, 최고의 서비스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홈페이지 : www.영신상조.kr

상품 내역 45인승 고급버스, VIP리무진(택일), 영정꽃, 장례상품 일체, 전문장례지도사, 상례도우미, 총괄전문의 < 1호 196만원 2호 3호는 가족들의 선택임 >



총괄경영주 박인안 장로


▲ 생화사진틀(선택형)


▲ 45인승 버스


▲ 최고급 리무진


▲ 근조기



콜전화 : 031)444-5566 / 031)386-5566(011-896-7100)

<최신추모관 특별혜택>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

2017년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 임·회원 명단

| 문의 |

회장 신재영 목사

HP : 010-7457-9768

상임총무 김전수 목사

HP : 010-3698-5764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에서는 도시 지역 미자립교회(성도수 20명 이하) 및 농·어촌, 신간벽지, 낙도 교회들을 대상으로 자비량 부흥성회를 개최하고 있사오니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 부흥회를 열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여러 가지 사정상 망설이고 계시는 교회는 부흥사회로 연락을 주시면 적극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대표고문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조용목 목사 (은혜와진리교회)	김상용 목사 (청주중앙순복음교회)	유봉수 목사 (은혜와사랑의교회)	진등용 목사 (새소망교회)	김용택 목사 (영동제일교회)	임종달 목사 (전주은혜와진리교회)	최광택 목사 (일산은혜교회)	이창개 목사 (진부제일교회)	김인규 목사 (은혜와평강교회)	조남영 목사 (기평순복음교회)
총회장	지도고문	지도고문	증경회장	증경회장	회장	상임위원	상임위원	상임위원	상임위원
									
김양인 목사 (목양제일교회)	김인찬 목사 (청신교회)	정부용 목사 (대림반월교회)	엄기설 목사 (은혜와천양교회)	김희대 목사 (간현교회)	신재영 목사 (새김전교회)	임영광 목사 (연천순복음중앙교회)	오승욱 목사 (천안서복교회)	황용연 목사 (은혜와평강교회)	김명묵 목사 (금산순복음교회)
상임위원	상임위원	상임위원	부회장	부회장	상임총무	상임부총무	상임부총무	사무국장	실무총무
									
정석현 목사 (안성평강교회)	백영자 목사 (능동순복음교회)	신동숙 목사 (순복음마두영교회)	김기진 목사 (제천순복음양문교회)	서정복 목사 (남원중앙교회)	김전수 목사 (제주한마음교회)	윤혜영 목사 (순복음주천미교회)	김바울 목사 (순복음진리교회)	최정식 목사 (순복음광복교회)	김병호 목사 (순복음행복한교회)
실무총무	서기	재무	회계	감사	감사	회원	회원	회원	회원
									
박홍열 목사 (오성리교회)	성기찬 목사 (동울산순복음교회)	조은혜 목사 (순복음빛원교회)	양은예 목사 (청조교회)	김종연 목사 (은혜교회)	최남성 목사 (동강순복음교회)	윤성수 목사 (진주은평교회)	권택선 목사 (순복음하은교회)	김연옥 목사 (행복완전교회)	이화숙 목사 (전주순복음우리교회)
회원	회원	회원	회원	회원	회원	회원	회원	회원	회원
									
임영철 목사 (순복음승리교회)	홍현자 목사 (사랑과평화교회)	조병희 목사 (기정순복음교회)	김명주 목사 (순복음열방교회)	정환무 목사 (순복음빛원교회)	김남수 목사 (밝은빛교회)	최승수 목사 (순복음스망교회)	서범석 목사 (가나안영성교회)	정에스더 목사 (예수왕가교회)	옥보에 전도사 (소망농아교회)



‘행복한 결혼정보센터’ 안내

Wedding

- 대 상 : 결혼 적령기 남녀 성도
- 신 청 : ㉠ 센터(안양성전 행복한결혼정보센터)에 직접 신청
 ㉡ 각 성전 교구장 통해 신청
 ㉢ 은혜와진리교회 홈페이지(www.gntc.net) 통해 온라인 신청
- 상담시간 : 매주 주일 오전 11시~오후 6시
 매주 수요일 낮 12시~오후 6시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5동 458-5 행복한 결혼정보센터
 (☎ 사무실 031-422-3735, 상담소장 010-4377-2842)

은혜와진리교회 부설 ‘행복한 결혼정보센터’는 결혼 적령기 크리스천 미혼 남녀가 주께서 예비하시고 허락하시는 인생의 반려자를 만나 주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도록 돕고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주께서 기뻐하시고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삶을 살아감은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은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행복한 결혼정보센터’에 신청하시고 믿음의 배우자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제출하신 서류 및 개인 정보는 담당자만 볼 수 있고 비밀이 보장되며, 일체의 비용도 없습니다. 본교회 성도는 물론 본교단 산하 교회 성도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로 위로하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장기기증 서약예배로 성도 236명 장기기증 서약

지난 5월 21일(주일) 생명나눔을 약속하는 장기기증 서약예배가 전국 10개 교회에서 드려졌다. 경기도 의정부에 위치한 의정부비전교회(담임목사 박근수)에서는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사람의장기기증 서약예배를 드렸다. 이날 의정부비전교회에서는 본부 박진택 목사를 주일 설교자로 초청해 ‘아름다운 기적’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들었다. 박 목사는 의정부비전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해 물과 피를 하나도 남김없이 주고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 크리스천들이 앞장서서 생명을 나누는 일에 동참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다”라는 사도신경의 가르침처럼 ‘말이 아닌 행동으로 말씀을 실천하자’라며 장기기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2010년에 이어 의정부비전교회에서 두 번째로 진행된 이번 서약예배를 통해 2010년에 서약했던 성도들도 생명나눔의 의미를 다시 되새기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담임목사를 비롯해 부목사, 장로 전원이 장기기증 서약을 했으며 총 236명의 성도가 장기기증 서약에 참여했다.

또한 경기도 남양주에 위치한 우리교회에서도 사랑의장기기증서약식이 진행됐다. 전권회 담임목사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서로 위로하며 살아야 한다”라며 “결국 장기기증도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위로이기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참여했으면 한다”라고 전하며 성도들에게 서약을 독려했다. 그 결



과 162명의 성도가 장기기증 서약에 동참하며 뜨거운 반향을 일으켰다.

서울을 넘어 강릉, 춘천, 전남 화순군, 충남 서천군, 대구, 대전 지역에서 장기기증 서약예배가 드려졌다.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정원교회(담임목사 이용재),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황금종교회(담임목사 이춘형), 강릉에 위치한 성덕성결교회(담임목사 정호영), 춘천에 위치한 불기동교회(담임목사 박형근), 전남 화순

군에 위치한 광주무등교회(담임목사 김민호), 충남 서천군에 위치한 서천실로암교회(담임목사 김명자), 대구에 위치한 동서교회(담임목사 김명환)에서 사랑의 장기기증 서약예배가 드려졌다. 이날 전국 10개의 교회에서 사랑의장기기증서약예배가 드려져 총 685명의 성도가 생명을 나누겠다는 약속에 동참하였다.

문의 :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홍보팀 02-363-2114(내선5)

한국·태국 15주년 국제교류기념 CTS교향악단 정기연주회

태국 왕실 지휘자 협연 등 풍성한 공연으로 환상의 연주

CTS기독교TV(회장 김정철, 이하 CTS)는 5월 27일 (토) 서울 동작구 노랑진 CTS 아트홀에서 관객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1회 CTS교향악단 정기연주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특히 이번 정기연주회는 한국과 태국의 국제 교류를 기념하는 의미로, 태국 왕실을 비롯한 대표적인 국가 주요 행사를 관장하고 있는 지휘자 나롱상부트(Narong Sanghoo) 소장의 객원지휘 협연이 이루어져 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의 ‘죽은서곡’, 베토벤의 ‘삼중협주곡’, 브람스의 ‘교향곡 1번’ 등이 연주돼 연주회를 찾은 관객들의 뜨거운 환호를 받았다.

CTS 김정철 회장은 “다양하고 유익한 기독교문화를 전파하기 위해 지난 2005년 창단된 ‘CTS교향악단’은 현재 60여 명의 단원들이 뜨거운 사명감과 열정을 가지고 교회음악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며 수준 높은 찬양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라며 “이번 정기연주회를 발

관상아 세계선교의 사명을 훌륭히 감당해나갈 수 있도록 ‘CTS교향악단’을 위해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연주회를 관람한 한 관객은 “CTS교향악단의 수준 높은 공연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단원들의 엄청난 연습과 노력이 엿보였다”며 “CTS를 통해 문화선교의 장이 보다 활성화 되어 성도들의 문화생활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CTS교향악단’은 이번 정기연주회에 이어, 향후 ‘100만인 찬양축제’, ‘태국 왕실초청 연주회’ 등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CTS교향악단이 속한 ‘CTS예술단’은 장로, 권사, 소년소녀 등 남녀노소 다양한 모습으로 CTS기독교문화사역에 동참하며 아름다운 동역자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CTS예술단 문의 02-6333-1043)



“화상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월드비전-베스티안 재단, 업무협약

국제구호개발NGO월드비전(회장 양호승)은 지난 5월 25일(목), 화상 아동을 후원하는 베스티안 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모든 어린이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라는 가치를 지향하는 월드비전과 화상으로 고통

받는 아동들에게 희망을 전하고자 하는 베스티안 재단의 목적이 부합해 성사됐다.

업무협약식은 월드비전 양호승 회장, 베스티안 재단 설수진 대표, 김혜옥 팀장 등 많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서울 여의도 월드비전에서 진행됐다.

앞으로 월드비전과 베스티안 재단은 화상으로 고통받는 국내 저소득 아동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료비, 재활비 등의 지원을 포함한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월드비전 양호승 회장은 “앞으로 베스티안 재단과 함께 더 많은 환아들에게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을 선물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화상과 같은 사고 및 질병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아동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어 가겠다”고 전했다.

베스티안 재단 설수진 대표는 “월드비전과 협력하여 화상을 비롯한 위기가정 아동들의 심리, 의료비 지원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밝게 자랐으면 한다”며 “나아가 화상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교육이 중요한 만큼 두 기관이 협력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화상으로 인한 위기 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베스티안 재단은 화상으로 고통받는 저소득층 환아들의 치료비 지원 및 화상 환자에 대한 인식 개선, 화상 예방 교육 등의 사업을 진행하며, 화상 사고 없는 안전한 세상 만들기 앞장서고 있다.

‘주께 감사하라’ 주제로 자막 설교

루게릭 환자 김정하 목사 한국컴패션 직원예배서 말씀증거

“1억 원을 번 사람이 동전 10원을 잃어버렸다고 불평을 하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1만가지 은혜를 받았는데 루게릭병에 걸렸다고 하나님께 불평을 하겠어요. 저에게 루게릭병은 동전 10원에 불과합니다. 남마다 주님이 주신 은혜로 감사하며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다.”

‘구두담이 목사’로 알려진 김정하 살롬교회 담임목사가 지난 5월 24일(수)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국제어린이양육기한국컴패션 사옥에서 열린 직원예배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의 감사’를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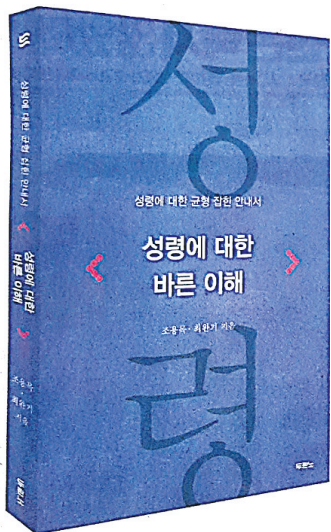


경기도 성남시에서 살롬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 목사는 지난 2007년부터 한국컴패션을 통해 세계 여러 나라의 가난한 어린이 9명을 후원하고 있다.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구두를 닦아 번 돈으로 후원금을 마련했던 김 목사는 2010년 루게릭병이 발병해 언어 장애와 신체 마비로 투병하면서도 묵화와 후원을 계속해오고 있다. 이런 선행으로 지난 2012년에는 대통령기 수여하는 국민추천 포상을 받았다. 방송에서 배우 차인표 씨가 김정하 목사를 자신의 멘토라고 고백하기도 했다.

이날 ‘주께 감사하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한 김 목사는 “여러분은 지금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루게릭 방언 설교를 듣고 계신다”라는 농담으로 말문을 연 뒤 “저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언어장애에, 중증 1급 장애인이고 얼마 전에는 아내가 갑상선암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루게릭도 갑상선암도 어떤 환경도 우리의 만남을 막지 못했다”고 선포했다. 이날 설교는 아내 최미희 사모의 도움을 받아 자막으로 진행됐다.

성령에 대한 바른 이해

잘못 알고 오해했던 ‘성령론’을 바로 잡는 책



성령에 대한 균형 잡힌 안내서

당신은 성령 충만한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는가? 그동안 한국교회는 성령에 대한 왜곡된 시각과 가르침으로 크고 작은 혼란을 야기해왔다. 이는 곧 성령의 바른 이해를 가린 채 은사주의, 변영신학으로 변저 교회와 성도들을 혼란케 했다. 이 책은 오직 성경을 근거로 하여 성령론을 일목요연하면서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이 균형 잡힌 지침서가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성령에 대한 오해를 바로 잡고, 한국 교회와 성도들을 더욱 성령충만한 삶으로 안내할 것이다.

왜 다시 ‘성령론’인가?

책을 집필하기 전 저자의 고민은 ‘이미 수다한 성령에 관한 책이 출간되어 읽혀지고 있는 이 때에, 굳이 또 한 권의 책이 출간될 필요가 있는가?’였다. 그럼에도 출간을 결심한 것은 ‘성도들의 성령에 대한 왜곡된 이해가 가장 큰 이유였다. 신학의 여러 분야 가운데서도 유달리 성령에 대한 이해는 심지어 같은

교단이라 해도 다른 견해를 가지곤 한다. ‘성령세례’와 ‘방언’, ‘신유’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 게다가 이 성령에 대한 이해가 심하게 왜곡될 경우 ‘신비주의’나 ‘은사주의’로 빠질 수 있기에, ‘성령론’의 연구와 올바른 안내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다면 성령은 도대체 무엇인가? 성령은 성령을 무엇이라 말하는가?

성령은 힘이 나 능력이 아니다, 성령은 하나님이다!

저자는 성령을 알기 위해서는 더 깊이 성경을 연구해야 한다고 말한다. 성령은 신약뿐 아니라 구약에서도 성령의 일하심을 기록했고, 이는 태초로부터 거슬러 올라간다. 성령은 어떤 신비한 힘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다.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지고 늘 곁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보혜사이시다. 이밖에도 ‘성령충만’의 올바른 이해와 ‘성령세례’, ‘은사’와 ‘열매’, ‘방언’과 ‘신유’ 등, 오직 성경을 근거로 하는 이 책의 균형 잡힌 안내를 통해 한국교회의 성숙과 뜨거운 성령충만의 회복을 기대한다.

저자 조용목 목사
최완기 목사

은혜와진리교회를 개척 설립해, 지금까지 수많은 성도의 목자로서 바른 길의 안내자가 되어 주고 있다. 현재 한국신학회 이사장, 세계하나님의교회 실행위원이다.
세인트루이스교회에서 30년 간 목회한 후, 현재 시카고에서 ‘4-14 윈도우’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한 프라미스교회를 담임하고 있다.

한국대학기독교총장포럼, ‘제4회 포럼’

‘종교개혁 500주년과 한국교회’ 주제



한국대학기독교총장포럼(회장 정일웅 박사)이 지난 5월 29일(월) 서울 연지동 한국기독교교회관에서 ‘제4회 대학총장포럼’을 가졌다.

‘종교개혁 500주년과 한국교회’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임성택 박사(전 KCC 총장)가 좌장을 맡았고 목창균 박사(전 서울신대 총장)가 발제했으며 정상운 박사(전 성결대 총장)가 논찬자로 참여했다.

포럼에서 목창균 박사는 루터의 대표적인 종교개혁 3대 논문으로 불리는 △독일 기독교 귀족에게 고함 △교회의 바벨론 포로 △그리스도인의 자유 등을 분석하며 이 논문들이 어떻게 독일 사람들에게 감명을 줬고 종교개혁에 호응하게 했는지, 그리고 오늘날 한국교회에 주는 지혜는 무엇인지 설명했다.

목 박사는 “루터는 사회의식을 가지고 교회개혁안과

독일 민족의 불만을 결합시켜 종교가 진공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인간의 삶과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시대정신을 직시하고 그 가운데 실천 가능한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해 그것을 구현하고자 했다”면서 “루터의 종교개혁이 독일 민족의 다양한 계층으로부터 호응을 얻었던 것은 사람들의 불만을 직시하고 대안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종교개혁 투쟁이 현실적인 삶의 문제와 결부돼 일어났기에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게 됐으며 그들이 종교개혁에 동참하게 됐다”고 했다.

목 박사는 루터의 종교개혁에 사람들이 호응한 이유를 말하며 이를 거울삼아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사회의식을 고취해 정의로운 사회질서를 실현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ACT, 제3회 전국 고교영어간증대회

총장상에 염진석 군 외 믿음·소망·사랑상 시상

제3회 전국 고등학생 영어간증대회가 지난 5월 28일(금) 경기도 양평군 소재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총장 김영욱)에서 개최됐다.

2015년부터 동 대학교 선교영어학과는 학과 특성을 살려 한국 교회의 고등학생 신앙 성장을 돕기 위해 이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대회의 총장상은 기도 응답과 헌상을 통해 하나

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내용의 간증을 한 염진석 군(은혜국제기독교교)이 받았다.

믿음상은 신앙에 관심이 없었으나 새로 부임한 중등부 담당 교역자의 약육을 통해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고 간증한 김지영 군이 받았다. 소망상은 소심하고 자신감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는 것을 깨달으며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고 자신의 삶을 나눈 하솔민 양이 받았다. 사랑상은 어릴 때 신장병을 앓아 많은 고생을 하였지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극복할 수 있었다고 간증한 변준민 군이 수상하였다.

이 대회는 교육적 목적으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들을 1등, 2등, 3등으로 상 주지 않고 믿음상, 소망상, 사랑상으로 시상한다. 그리고 장려상은 이만우군 최하영양, 홍찬영군 등 3명이 받았다.

가족세트전도 참관기

가족 세트 전도 통한 부흥의 열매

저는 5월 4일 대구에 있는 진구 목사님의 초청 및 부탁으로 대구 꿈빛강성교회에서 실시하는 가족세트 전도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참석하면서 느낀 것은 ‘그래 이렇게 전도하면 되겠구나, 나도 열심히 전도를 해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월 18일, 부산 진리들대학교에서 실시하는 가족세트전도 세미나에 다시 참석했는데 박영수 목사님이 달라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전까지는 ‘전도를 열심히 하면 되지 꼭 이렇게 쫓아 다녀야 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날 목사님이 보인 전도의 시범을 보면서 그 전도법과 전도의 능력은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약 1시간 남짓한 시간에 127개에 들어가서 12사람 이상에게 영접기도를 시키고, 더욱 놀라운 것은 그 가계를 전부 사업장 예배 곧 세미나를 했던 진리들대학교 목사님으로 하여금 주간 중에 축복 기도를 받았다는 약속을 받아내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진 전도 상식과 경험으로는 이런 정말 놀라운 일이라 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 두 눈으로 본 사실만 기록한 것입니다. 저 역시 나름대로 전도에 대하여 할 말이 있다고 할 정도로 전할전도, 버스전도, 노방전도, 병원전도를 하고 나아가 차량에다 엠플을 설치하여 전도를 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나름대로 전도를 한다고 해 보았지만 이렇게 능력 있게, 이렇게 열매있게, 이렇게 빠

른 시간에 이렇게 많은 사람을 전도해 본 적도 없고 또 이렇게 전도를 하는 사람도 보지도 못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박영수 목사님의 전도법은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최고의 전도법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번 가족세트전도세미나에 참석을 하면서 이런 결론을 갖게 되었습니다.

1. 한국교회 부흥을 위하여 꼭 필요한 전도법이다.
2. 특별히 개척교회가 반드시 해야 될 전도법이다.
3. 목사님 사모님들이 필수적으로 해야 될 전도법이다.
4. 세상의 어떤 전도법보다 열매가 빨리 그리고 많이 나타난 전도법이다.
5. 반드시 전도 열매 맺는 전도 교회의 부흥을 가져오는 전도법이다.
6. 그리고 이 전도법은 마석천 목사가 자신 있게 추천하는 전도법이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010-4699-9191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교래가 사는 항구도시 울산에서, 마석천 목사 올림

평내순복음교회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121-10
동영상: <http://blog.naver.com/bys2573>
가족세트전도 아카데미 학장 박영수 목사
031)592-1691, 010)3730-2573
평내순복음교회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121-10

CTS, ‘위험한 방향’ 거리 청소년들의 보호자

“별을 만드는 사람들” 심규보 대표 사연

CTS기독교TV(회장 김정철, 이하 CTS) ‘7000마리 클·땅굴으로연출 전생’는 대구에서 거리의 위기 청소년들을 돌보고 있는 비영리 법인 ‘별을 만드는 사람들’ 심규보 대표의 사연을 지난 5월 30일(화) 오전 10시 10분에 방송했다.

심규보 대표는 10대와 20대 시절 방황하다 구치소에 들어가게 됐다. 그러나 구치소에서 만난 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복역 후에도 같은 사람들의 상처를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비영리단체인 ‘별을 만드는 사람들’을 세웠다.

현재 심규보 대표는 ‘별을 만드는 사람들’에 찾아오는 청소년들에게 따뜻한 식사와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고 있다.

지원금이 나오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사비를 사용해 아이들의 보호자 역할을 하고 있다. 어려운 환경이지만 심 대표는 아이들에게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해줄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다.

“대표님을 만나니 안심이 돼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시내 밤거리를 형사와 순찰을 다니다기도 하고 범죄



심리사로 청소년 범죄자와 면담을 하고, 거리에서 방황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언제든지 연락하라며 명함을 주는 심규보 대표. 하지만 현재 형편으로는 더 많은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워하고 있다. 그래서 아이들을 돌봐 줄 수 있는 팀터를 만들기 위해 기도하고 있다.

‘7000마리클·땅굴으로’에서는, 많은 곳에서 상처

받은 위기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보호자가 돼주고 있는 ‘별을 만드는 사람들’ 심규보 대표의 사연을 소개하고 정보와 후원의 손길을 기다린다. 심 대표 사연은 각 지역 케이블과 SkyLife 183번, IPTV(KT OllehTV 236번, SK BTV 301번, LG U+ 180번), 해외위성, CTS APP을 통해 전 세계에서 시청할 수 있다.

국내외 4,000 교회 기도자로 3집 발표

세기총, 통일기도운동과 교회연합 위해

사단법인 세계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세기총, 대표회장 황의준 목사)는 지난 3월 29일부터 매일 마지막 주 수요일에 있는 삼일절 저녁 예배 및 기도회를 통해, ‘국내외 4,000 교회가 대한민국의 분단된 것이 하나가 될 때까지’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통일기도와 교회연합을 이루는 기도운동’을 펼쳐 나가고 있다.

이에 세기총은 지난 5월 31일(수) 세 번째로 기도운동에 사용될 자료를 발표했다.

이번 자료는 장석진 목사(뉴욕성결교회 원로목

사)가 맡았으며 스 1:1~4 말씀을 본문으로 ‘통일을 위한 세기총의 전략적 접근’이라는 제목의 말씀이다.

장 목사는 한반도의 통일에 대한 전망을 말하면서 “통일에 대한 기대는 크지만 통일은 점점 멀어져만 가는 것 같다. 강대국이나 외세의 힘에 의존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잘못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한국의 통일 신화를 정립하고 통일 대안을 만들고 준비해야 하며 기독교가 통일 후자립적인 사상 체제

를 이룩할 수 있도록 앞장서서 활동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북한 통일은 세계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우리 민족의 성공적인 통일의 전략적 목표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둘 때 가능한 것임을 믿고 확신하면서 한반도의 통일을 명할 이 시대의 고백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하며, 독일 동서의 장벽을 허문 기도운동처럼 지속적으로 해야 됨을 말했다.

-풍부한 미네랄을 함유해 쓰임새와 효능 무궁무진-

최고의 ‘365일 신안비금천일염’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청정지역 신안에서 깨끗한 해수로 생산



대표 김국대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인 청정지역인 전남 신안의 천혜의 자연 환경에서 깨끗한 해수와 적정 일조량으로 생산되는 신안천일염은 풍부한 미네랄로 인해 그 쓰임새와 효능이 무궁무진한 식품입니다. 한국 최고의 천일염은 바로 신안 천일염입니다.

천일염은 고혈압에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미네랄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소금을 많이 섭취하면 분명해 것은 고혈압에 안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네랄이 풍부한 좋은 소금(천일염)을 잘 사용하면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일반소금은 미네랄이 별로 없거나 극히 미량이라고 합니다. 탈수할 때 강제로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미네랄도 함께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완한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제가 써본 결과 음식맛이 확 달랐습니다. 재료 고유의 깊은 맛을 잘 살려주더군요.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 신안천일염도 청정지역 신안의 깨끗한 해수와 적정 일조량으로 생산하고 있어 미네랄이 풍부해 그 어떤 소금과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일반염과 천일염의 차이는?

1. 정제염은 100%로 염화나트륨이다. 반면에 천일염은 85% 염화나트륨, 15%는 칼슘, 칼륨, 마그네슘 등 미네랄이다. 칼슘, 칼륨, 마그네슘은 나트륨을 체외로 배출시켜 혈압을 낮춘다.
2. 간장, 된장, 고추장, 젓갈, 김치를 만들 때 천일염을 써야 맛과 풍미가 좋아진다. 발효균이 정제염보다 천일염을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천일염은 어떻게 만드나요?

천일염은 태양열, 바람 등 자연을 이용하여 해수를 저류지류 유입해 바닷물을 농축시켜서 만든 소금이다. 천일염의 주요 산지는 지중해, 홍해 연안의 각국을 위시해 미국, 인도, 중국 등 각 해양연안에 많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서해와 남해에서 주로 생산된다. 천일염의 염도는 일반적으로 90% 내외이고, 색상은 백색과 투명색이 있으나 한국산은 기상조건으로 염도 80% 내외의 백색이다.

천일염 만드는 방법

해수에 용존되어 있는 염분을 태양열, 풍력, 자연력에 의해 포화 함수로 만들어 결정시킨 것으로 우리나라 서 남해에서 많이 생산되며 염도는 85~88% 정도이다. 계절에 따라 맛의 차이가 나며 30도 정도의 물의 온도를 맞춰 생성된 소금이 가장 좋다.

■ 가격 20kg 1포 20,000원(택배비 포함) ■ 은행계좌 110-357-991640 신한은행 예금주 김국대

할렐루야!

그동안 성원해 주신 많은 교회 성도님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의 말씀 전해 올립니다. 저희 신안(비금도) 천일염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간수가 잘 빠진 품질 좋은 제품으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식당 또는 교회 성도님들이 단체로 구입할 경우
택배비없이 대량구매 특별할인가격으로 공급해 드립니다.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상담 문의 010-3000-7602
(연중무휴 365일 주문접수)



‘교회학교 교사 강습회’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열려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준비 만전” “성령 충만한 헌신 위해 기도”

교사들은 지난 5월 13일(토) 오전 10시 은혜와진리교회 수원성전 대성전에 모여 거룩한 교사의 직분을 주시고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께 개회예배로 영광을 돌리며 학생들을 잘 이끌 수 있는 믿음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기를 기도하고, 이어진 여러 강의와 실습을 통해 교사로서의 자질 향상을 꾀하는 한편 여름 어린이 성경학교와 청소년 수련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였다.

이와 함께 성경퀴즈대회 등의 다양한 순서를 통해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함께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안기호 목사의 사회로 수원성전 유치부 부장 박상영 장로의 기도에서 이어진 개회예배 설교에서 최형택 목사(광양 은혜와진리교회)는 주제 말씀을 본문으로 한 설교로 은혜를 끼치며 교사들의 사명감을 북돋워 주었다.

개회예배를 드린 후 오전에 아동부서의 교사들은 대성전에서 대림별일교회 조은님 전도

사의 지도와 에이레네 어린이 선교단의 시범을 통해 새로운 찬양 울동을 배웠고, 중고등부 교사들은 교육관에서 이재민 교사의 ‘크리스천의 직업의식과 지도방법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특강을 들었다.

성전과 부서별로 정성껏 준비해 온 음식으로 즐거운 점심식사를 한 뒤 계속해서 오후에는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에서 실시할 체험 활동 프로그램의 주요 포스트별 시연과 직접 체험을 통한 강습이 각 부서별로 교사와 교역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속에 진행되었다.

이날 강습회를 통해 더욱 신령한 지식과 능력을 갖추게 된 교사들은 주어진 막중한 시대적 사명을 사뭇게 인식하고, 성령 충만한 봉사와 섬김으로 아름다운 헌신의 열매를 맺어 가며 이를 통해 우리 교회학교가 지속적인 부흥을 이루고 어린이와 학생들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나가기를 한 마음으로 기원하였다.



강하고 담대하게 목회사역 감당할 것 다짐

충주지방회

충주지방회(회장 윤병하 목사)는 지난 5월 27일(토) 오전 11시 충주 새생명순복음교회에서 감곡가나안순복음교회 김미자 전도사의 목사임직예배를 드렸다.

이날 1부 예배는 김기진 목사(제천양문순복음교회)의 사회로 시작되어 회장 윤병하 목사(한우리교회)의 대표기도, 사회자의 성경봉독, 윤인주 전도사(오순절찬양교회)의 특송, 증경회장 박희배 목사(영주교회)의 설교 순으로 드려졌다.

박 목사는 수 1:7-9 말씀을 본문으로 ‘강하고 담대하라!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목사 임직자로서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 함있게 목회사역을 감당해 나갈 것”을 임직자와 성도들에게 당부했다.

2부 임직식은 지방회장 윤병하 목사의 집례로 임직서약, 안수위원의 안수기도, 임직

증서 및 임직패가 증정되었다.

3부 순서로 정민 목사(장호원순복음교회)의 축사, 이관재 목사(임마누엘교회)의 권면, 김유남 목사(드림과나눔교회)의 헌금기

도, 총무 이범구 목사(새생명순복음교회)의 축도로 목사임직예배를 은혜가운데 마쳤다.

예배 후에는 가나안순복음교회에서 준비한 애찬을 함께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다.



목사 임직예배, 성령충만한 목회자 될 것

일산지방회

일산지방회(회장 박승호 목사)는 지난 5월 20일(토) 오전 11시 참좋은교회에서 목사 임직예배를 드리고, 목사 임직자 권도진 전도사의 앞날을 격려하고 축복해 주었다.

이날 1부 예배는 서기 양호철 목사(일산지방회)의 사회로 시작되어 박미자 목사(빛과사랑의교회)의 기도, 총무 조영란 목사의 성경봉독에 이어 회장 박승호 목사(양의분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박 목사는 행 7:54-60 말씀을 본문으로 한 ‘성령충만한 목회자’라는 생명의 말씀으로 목사 임직자 권도진 전도사를 축복했다.

2부 목사 임직식은 안수위원장 박승호 목사의 집례로, 증경총회장 김용덕 목사, 부회장 이재덕 목사, 재관위원장 이진우 목사가 안수위원으로 참여한 가운데 권도진 전도사에게 본교단 헌법 37조 1항에 의거하여 서약을 받고, 임직기도, 성의작의, 악수례, 공포,

안수증 및 임직패 증정의 순으로 임직식이 진행되었다.

3부 권면과 축사 시간에는 총무 조영란 목사의 사회로 부회장 이재덕 목사, 재관위원장 이진우 목사의 권면과 증경총회장 김용덕 목사, 강남지방회 증경회장 김종렬 목

사의 축사 후에 권도진 목사의 인사 및 광고에 이어, 증경총회장 김용덕 목사의 축도로 목사 임직예배를 은혜 가운데 마쳤다.

이후 참좋은교회에서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애찬을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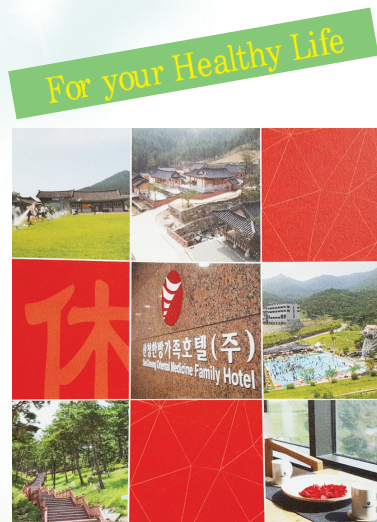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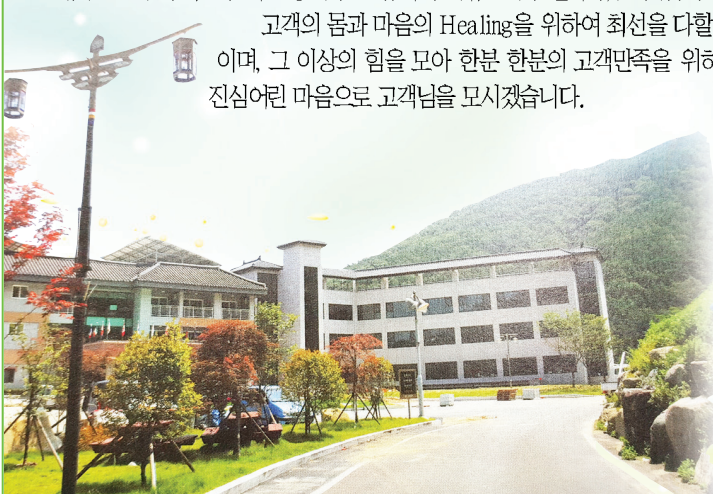
www.dkfh.kr

산청한방가족호텔이 지리산을 품다!

우리나라의 영산인 지리산 자락의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주행사장인 동의보감촌 내에 위치한 고품격 가족호텔입니다. 저희 호텔에서는 산, 숲, 계곡 그리고 세계전통의약엑스포 테마가 있어 더욱 즐거운 가족호텔.

전통한방, 기, 명상 등의 체험과 천혜의 자연이 살아 숨쉬는 산청의 아름답고 깨끗한 환경과 약선 음식을 통해 참된 휴식과 치유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객의 몸과 마음의 Healing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며, 그 이상의 힘을 모아 한분 한분의 고객만족을 위하여 진심어린 마음으로 고객님을 모시겠습니다.



필봉동/왕산동(스탠다드A/B/온돌, 단체룸)



허준동(원룸/투룸)

예약문의 055)972-7000

52229 경상남도 산청군 금서면 동의보감로 479번길 43

군대 내 동성애 저지, 현재 역할 중요

현재의 위상을 무시하고, 신뢰를 떨어뜨리는 위헌심판 청구 자제해야

한국교회 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는 최근 군대 내에서 현역 장교와 부사관과 사병이 포함된 동성애 문제로 장교가 실형을 받은 사건에 대해 논평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군대 내 동성애를 막는 특별법이 있다. '군형법 제12조 6항'이다.

이러한 금지 조항이 있음에도 군대에서 동성애가 벌어졌이 벌어진 것은 충격적이다. 이를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여러 가치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엄연히 잘못된 행동이다.

군대 내 동성애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2008년 대법원에서는 "군형법의 추행죄는 군대의 성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제정된 조항으로, '항문 성교'에 이르지 아니한 동성애 성행위 등,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성적 민족 행위로서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이 '위헌 소지'가 있느냐의 판단을 요하는 '위헌심판 제청'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 국민으로서의 여러동절한 일이다. 헌법적 상황과 맞는다는 법률에 대하여서도 집요하게 묻고 늘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발처 2000년대에 들어와서만 네 번째이다. 지난 2002년, 2011년, 그리고 지난해까지 세 차례에 걸쳐 위헌심판 제청이 있었고, 헌법재판소(이하 현재)는 이에 대한 심판을 한 바 있다. 지금까지 현재는 모

두 '합헌'으로 결정했었다.

그런데 올해 4월 인천지방법원의 이 모 판사가 다시 위헌심판 청구를 한 상태이다. 이에 대하여 한국교회 언론회가 인천지법에 보내 공문에서 인천지법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는 답변을 보내 왔다.

그렇다면, 현재는 우리나라 헌법의 최종 권위자이며 결정자인데 현재의 결정이 나온 지 불과 1년도 안 되어 이에 불복하여 위헌심판 제청을 하는 판사는 무엇이며 이를 심판하려는 현재는 무엇인가?

현재의 결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인가? 아니면, 일선의 판사들이 현재를 뒤흔들어 보겠다는 것인가? 이에 대하여 현재와 법원은 답을 해야 한다.

현재와일선 법원의 판사들은 우리 헌법의 가치와 그 결정에 대하여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수개월도 안 되어 현재의 결정에 대하여 묻고 또 묻는다면, 우리 헌법이 가진 권위는 누가 인정할 것이며 법관들을 누가 신뢰하겠는가?

우리 사회는 그렇지 않아도 '불신의 시대'를 살고 있다. 그런데 우리 법률의 모든 근거가 되고 법정신이 들어 있는 헌법과 이를 해석하고 결정하는 현재의 결정을 결과적으로 불신한다면 이것은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것은 법률이며 그 법률의 모체가 되는 것은 헌법이다. 그런데 일선 판사들이 이를 스스로 의문시한다면 국민은 일선 판사들의

판결을 어떻게 따르고 신뢰하겠으며 현재의 결정은 어디까지 믿겠는가?

따라서 일선 법원과 대법원에서는 판사의 헌법적 권위와 독립성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판사로서의 소양과 책임에 대한 것부터 확바로 교육을 시켜야 한다. 현재는 현재에서 결정된 헌법적 기준에 대한 결정과 심판한 사안에 대하여 다시 묻는 것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개인 간에 약속한 것도 지키는 것이 '신용 사회'이고 그 신용을 바탕으로 서로 믿고 살아가는 것인데 국민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법조인들이 법관으로서의 자리와 권위를 이용하여 헌법적 체계를 흔드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김이수 헌법재판관(이하 김 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하였다. 김 재판관은 지난해 군대 내 동성애를 금지하는 '군형법 제12조 6항'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위헌' 입장을 피력하였다.

현재의 헌법재판관 한 사람 한 사람의 결정은 매우 신중해야 하며 적어도 객관적/중립적/보편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현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우리나라는 군대 내 동성애를 막을 수도 있고 확산시켜 군의 질서와 사령을 무너뜨릴 수도 있게 됨을 명심하기 바란다.

- 한국교회 언론회

사 설

정부 차원의 이슬람 정책 시급

'이슬람국가'라고도 하고 'IS'라고도 하는 폭력집단의 기독교인 학살, 고대 문화재 파괴, 구미 각국인에 대한 인질과 살육, 자살폭탄테러 등 만행을 보노라면 이 지구촌에 무서운 적그리스도 집단이 종말적 발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할 만큼 심히 우려되고 있다.

이 집단은 이람 회교 테러 조직의 검은 석유달러의 지원을 받아 막강한 무력을 확보하고 친 서방 이람 국가들에 대한 포격과 폭탄 테러를 자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이슬람 인구는 지금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1956년 208명에 불과했지만 60년이 지난 오늘 25만 명으로 증가했고, 근래 동남아시아의 다문화 근로인력 유입 등으로 인해 비공식적으로는 40만 명이 될 것이라고 한다. 이대로 간다면 10년 안에 국내 이슬람 인구는 백만 명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050년에는 한국의 이슬람 인구는 400만 명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한다.

영국의 테일러 익스프레스 신문 칼럼니스트 매킨스트리(Leo McKinstry)는 유럽에서의 다문화 실패 원인을 네 가지로 보았다. 이슬람 테러리즘과 무슬림에 의한 성폭력, 폭력적인 범죄행위, 그리고 마약 사용이 그것이라 한다. 그 중 가장 무서운 현상이 무슬림에 의한 폭력과 테러 행위다.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테러가 대부분 무슬림들에 의한 것임을 볼 수 있다. 사람들은 왜 무슬림

세력에 의해 테러가 일어나는지 잘 모르고 있다고 이슬람 전문가 유해석 선교사(FIM국제선교회 대표)는 지적한다.

이슬람의 구원관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슬람 경전 꾸란의 많은 구절이 알라와 이슬람을 위한 전쟁, 즉 "지하드"에 참전했다가 "순교"할 경우에 천국으로 안내된다는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한다. 이슬람의 알라는 알라와 이슬람을 위하여 싸우는 이들에게는 커다란 보상을 주지만, 타락의 길로 인도한 타종교인들과 불신자에게는 복수의 화신이 된다고 꾸란은 가르친다.

이러한 꾸란의 구절을 "칼의 구절(Words of Sward)"이라 부른다고 한다. "칼의 구절"들이 꾸란에는 109구절이 있다는 것이다. 독재타도나 "반미"의 이름으로 행하는 무슬림의 테러는 이슬람의 구원 사건이다. 이슬람에서 인간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4가지 있으나, 살아 있는 사람이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길은 지하드 전사가 되어 싸우다 죽는 것 외에 없다고 한다. 따라서 이슬람이 증가하면 테러가 증가하는 것이라고 이슬람 연구자들은 지적한다.

저 이슬람 폭력 집단의 난동과 유럽 각국의 실패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우리 정부는 이슬람 문화의 조장 정책을 즉시 재검토하고 신중한 대책을 세울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나라 위해 다함께 기도할 때

6월 호국보훈의 달이다. 목숨 바쳐 나라를 지킨 우국충렬의 뜻깊은 계절은 왔건만 주변 강대국에 둘러싸여 혼돈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혼란의 위기 속에서 구해낼 강력한 리더십이 보이지 않아 심히 우려되는 상황에 국민들은 가슴을 졸이고 있다.

저 분단의 북녘땅에선 지금 광란의 포화한 독재자가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 도살을 자행하고 있고 핵, 미사일 발사를 통해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 대한민국 호를 걱정하는 소리가 드높다. 미·중·러·일·한반도 주변 강대국들이 외교안보 총력 대

결을 벌이면서 우리의 국익을 갉아 먹어 들고 있건만, 우리는 분단과 적의 도발이라는 극한 상황 속에서도 국가와 국민들의 안전을 위한 확고한 안보상황을 만들어 내기 보다는 국가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사안을 여론몰이로 내몰고 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한 때이다. 엘리사는 엘리야 선지를 향해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하고 부르며 도움을 청했다.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영을 물려받았다. 국가 지도력이 긴요하고 나라가 심히 어지럽고 혼란하며 북녘땅이 한층 불길한 조짐을 보이고 있는 이때, 다 함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한다.

CTS 스페셜 ‘한국교회를論하다’

저출산 극복 위한 교회의 역할

CTS기독교TV(회장 감경철 '이하 CTS')가 진중한 성질을 통하여 한국교회의 변화와 경신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CTS스페셜 한국교회를論하다' (이하 '한국교회를論하다')를 통해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짚어보고,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 교회가 어떤 노력들을 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해보고자 '저출산 극복위한 교회의 역할'을 편을 지난 6월 2일(금) 오전 10시 10분에 방송했다.

이날 방송은 한기재 목사(중앙성결교회)의 사회로 최이우 목사(종교교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신정 목사(광양대광교회, CTS전남지사 이사장), 이상갑 목사(산본교회, 청년사역연구소 대표)가 출연하여 △한국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 △저출산 문제의 원인 분석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실제적인 교회의 역할에 대해 패널들의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되었고, 구체적인 대안과 해법을 모색했다.

한국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이상갑 목사는, 올해 3월 출생아 수가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통계청의 발표를 전하며 "현재 세계 출산율 1



위 국가는 6.62명인 데에 비해 한국은 1.25명으로 심각한 수준"이라고 진단하면서 "기회가 닫혀있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이유로 제시하며 청년들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취업, 결혼, 출산 등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정 목사는 양육비 등의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출산을 부담스러워 하는 현실에 대해 "한국

교회가 어떻게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지 실제 목회 현장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와 토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CTS가 한국의 저출산 문제에 대해 10년 전부터 한국교회를 향해 그 심각성을 알리는 역할을 해왔다"면서 앞으로는 한국교회가 CTS와 함께 저출산 문제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경기남지방회

다메섹교회 ACADEMY



이원정 목사

다메섹순복음교회 담임

하나님의 계시(아포칼립스)

주님께서 70인을 세워 전도대로 파송했을 때, 전도대들이 돌아와 '주여,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이 항복하고 병이 고쳐지고, 마귀가 떠났 습니다'라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니, 주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사탄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으니, 마귀가 떠난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하늘에 내 이름이 기록된 기쁨보다는 사역의 결과로서의 일들을 기뻐합니다. 하지만 본질적 기쁨은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됨이 구원입니다. 주님도 성령 안에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포칼립스(스게시)가 열려, 계시를 받은 자들이 아버지가 누구며, 아들이 누구인가를 알게 합니다.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에게는 나타내어 주심이 감사하나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거듭난 제자들입니다. 전에 있던 선지자들과 왕들이 이것을 보기를 원하였으나 보지 못하였지만,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보았음에 복 받은 자들이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가, 아들이 누구인가를 계시 받은 자만이 알 수 있습니다(기노스코). 그리고 영존하는 생명을 상속 받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는 율법의 관원이고,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였지만 감춰져있어, 율법을 가르치고, 지키지만 의미는 모른 채 행위만 강조하였습니다. 마치 나무꾼이 숲에서 길을 잃은 것과 같이, 전체 구조를 알지 못하면 그 안에서 헤매듯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니고데모는 율법 행위로 구원을 받을 줄 알고 열심히 살았지만 구원을 얻지 못하고 헤매다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영생을 받는 자들은 첫째, 하나님과 가족이 되어야 하며, 아들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야 비로소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습니다. 셋째, 신분에 걸맞게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여 자비를 베푸는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자들입니다.



목회자 세미나

- 시간 : 매 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 낮 12시 30분
- 대 상 : 광주를 중심으로 성남, 용인, 곤지암, 수원, 하남, 이천, 여주 등에 교회를 두고 있는 개척교회, 미자립 교회의 목회자
- 강 사 : 강사는 목회자들에게 존경받으며 귀감이 되며 덕망을 갖춘 본 교단 목회자 또는 교수 중에서 선임 하되 점차 초교파적으로 확대한다.
- 흥 보 : 목양신문을 통해 정기적으로 한다.
- 강사료는 무명으로 하되 간단한 증서는 교회에서 제공한다.
- 위 치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현산로 130-40 다메섹순복음교회(담임 이원정 목사)
- 연락처 : 031-765-2791

예수교대한
하나님의성회

제66차 총회 제1회 실행위원회

- 아래 -

1.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본 교단 제66차 총회 제1회 실행위원회를 교단 헌법 제8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일 시 : 2017년 7월 20일(목) 오후 1시 (12시부터 점심식사)
- 2) 장 소 : 총회본부(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TEL. 02-2675-5181~3)

*점심식사 등 준비관계로 참석여부를 7월 13일(목)까지 총회본부(02-2675-5181~3)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6월 10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JESUS ASSEMBLIES OF GOD IN KOREA

총 회 장 목사 김 양 인
총 무 목사 엄 기 설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TEL 02)2675-5181~3 Fax 02)2677-5181 http://www.aogk.org

http://agpgs.aogk.org

2017학년도 제2학기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 회 목 회 대 학 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예수교대한
하나님의성회

총회목회대학원 신·편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대학원은 사단법인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단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훈련기관으로써 교단 소속 사역자가 목사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필히 본 대학원을 졸업하여야 한다.

● 교육목표

본 대학원은 전통 복음주의 기독교 신앙을 토대로, 제반 신학 이론과 오순절 신학을 연구, 교수함으로써 장차 한국과 세계의 교회를 이끌어 갈 올바른 신학적 이해와 인성과 지성을 갖춘 영적인 지도자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지원 자격

학 과	과 정	수업연한	지원자격
목회학과	목회학 석사 (M.M/ Master of Ministry)	2년 (4학기)	• 본 교단의 소속목사 또는 전도사 • 본 교단의 신학교 졸업자(예정자) • 타 교단 신학교 졸업자(4년제) • 타 교단 교역자로서 본 교무위원회의 허락을 받은 자

2. 제출서류

- ①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양식) 1부
- ②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③ 최종신학교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④ 추천서(소정양식) 1부
- ⑤ 반명함판 사진 2매
- ⑥ 주민등록등본(2개월 내 발급분) 1부
- ⑦ 가족관계증명서(혼인사실관계) 1부
- ⑧ 목회자 소속 재직 증명서 1부(해당자)

3. 전형일정 및 접수 방법

- ① 원서교부 : 수시 교부
- ② 원서교부처 : 본대학원 행정실 및 대학원 홈페이지(http://agpgs.aogk.org)
- ③ 원서접수 : 수시 접수
- ④ 접수방법 : E-mail 혹은 우편이나 방문접수(luvjx7@daum.net)

4. 전형료 및 입금계좌

- ① 전형료 : 50,000원
- ② 계좌번호 : 농협 302-0928-2133-91(예금주: 임종달)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본 대학원 졸업자는 졸업과 동시에 목회학 석사(Master of Ministry/교단인정 학위를 수여하며 교단 목사교사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 ② 본 교단 소속 목사 중 목회학 석사(M.M)학위를 취득코자하는 자에게는 50% 장학금 혜택을 부여한다.
- ③ 본 대학원 강의는 매주 월요일 오전 9:30분~ 오후 4:40분 까지 진행된다.
- ④ 접수된 서류에 허위나 발견되면 합격을 하였더라도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 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 행정실로 문의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학처 : 02)2677-0692

- 원서접수 : 수시 접수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학처 02)2677-0692

홈페이지 : www.agtc.or.kr

2017학년도 제2학기

예수교대한
하나님의성회

총회신학교 신·편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신학교는 신실한 사명 자들을 성경적 신앙의 바탕 위에서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거룩한 성품과 오순절 신학을 겸비하여 이 시대가 요청하는 사명자를 배출함으로 한국과 세계복음화에 헌신할 영적 지도자를 양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교육목표

- ① 성경적 오순절 신학의 연구와 정립
- ② 거룩한 성품과 성령의 능력이 겸비된 일꾼 양성
- ③ 건강한 교회를 세울 참신한 지도자 양성

● 교훈

- 자질을 갖춘 소명자
- 진리충만 은혜충만한 소명자
- 복음전파에 목숨을 건 소명자

1. 지원자격

학 과	수업연한	지원자격
신학과 (신입생)	4년8학기 (140학점)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포함) • 고등학교 졸업 학력 감정고시에 합격한 자 •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고졸 이상의 동등한 자격을 인정받은 자
신학과 (편입생)		• 4년제 대학졸업자 : 3학년에 편입 • 전문대 졸업자 : 2학년에 편입 •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할 경우 해당 학년 편입

2. 제출서류(각 1통)

-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 ② 담임목사 추천서
- ③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④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⑤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자)
- ⑥ 건강진단서(HIV포함)
- ⑦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⑧ 가족관계증명서
- ⑨ 반명함판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3. 전형일정 및 접수방법

- ① 원서교부 : 수시 교부
- ② 원서접수 : 수시 접수
- ③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총회신학교 교학처)

4. 전형료 및 입금계좌

- ① 전 형 료 : 30,000원(계좌로 입금)
- ② 계좌번호 : 농협 302-0928-2133-91(예금주 임종달)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졸업 후 본 교단 전도사 임명자격을 부여한다.
- ② 총회목회대학원 입학자격을 부여한다.
- ③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신학교 교학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학처 : 02)2677-0692

- 원서접수 : 수시 접수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학처 02)2677-0692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 회 신 학 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ASSEMBLIES OF GOD